

尹東柱 詩 対訳

이별

눈이 오다, 물이 되는 날
젖빛 하늘에 또 뿌연 내, 그리고,
커다란 기관차는 빼—악— 울며,
쫓꼬만, 가슴은, 울렁거린다.

이별이 너무 재빠르다,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일터에서 만나자 하고—,
더운 손의 맛과, 구슬 눈물이 마르기 전
기차는 꼬리를 산굽으로 돌렸다.

1936. 3. 20

別れ

雪が降り、水になる日
灰色の空に また白くけぶる小川、そして、
巨大な機関車は ボーオーッと泣いて、
ちっぽけな、胸は、ざわめく。

別れがあまりにも早い、残念にも、
愛する人に、
仕事場で会おうと言って—、
温かい手の感触と、玉の涙が乾く前に
汽車は尾を 山裾の曲がりめにめぐらした。

새로운 길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新しい道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きのう}昨日も行き ^{きょう}今日も行く
わたしの道 新しい道

タンポポが咲き かささがが飛び
娘が通り 風が起こり

わたしの道は いつも新しい道
今日も……^{あした}明日も……

川をわたって森へ
峠を越えて村へ

1938.5.10

아우의 인상화

붉은 이마에 싸늘한 달이 서리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발걸음을 멈추어
살그머니 애딘 손을 잡으며
“너는 자라 무엇이 되려니”

“사람이 되지”
아우의 설운 진정코 설운 대답이다.

슬며 — 시 잡았던 손을 놓고
아우의 얼굴을 다시 들여다본다.

싸늘한 달이 붉은 이마에 젖어,
아우의 얼굴은 슬픈 그림이다.

1938.9.15

弟の印象画

赤い額に 冷たい月が差し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歩みを止め
そっと幼い手を握って
「お前は大きくなったら何になる」

「人になる」
弟の悲しい ほんとうに悲しい答だ。

そおっと 握っていた手を放し
弟の顔を もう一度見つめる。

冷たい月が 赤い額に濡れ、
弟の顔は 悲しい絵だ。

귀뜨람이와 나와

귀뜨람이와 나와
잔디밭에서 이야기 했다。

귀뜰귀뜰
귀뜰귀뜰

아무게도 아르켜 주지말고
우리둘만 알자고 약속했다。

귀뜰귀뜰
귀뜰귀뜰

귀뜨람이와 나와
달밝은밤에 이야기 했다。

こおろぎと僕と

こおろぎと僕と
芝生でおはなしした。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だれにも知らせないで
僕らふたりだけ知っていようと約束した。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クイトウルクイトウル

こおろぎと僕と
月の明るい晩におはなしした。

1938（推定）

（この詩のハングル表記は自筆原稿による）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939.9

自画像

山裾の曲がり角をめぐって、田んぼのそば、ぽつん
とある井戸を、ひとり尋ねて行つては、そっと覗い
てみま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天が広が
り、真っ青な風が吹き、秋があります。

そしてひとりの男がいます。
なぜか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かわいそうになりま
す。引き返して行つて覗いてみると、男はそのまま
います。

またその男が憎らしくなって、帰って行きます。
帰ってから考えると、その男がいとおしくなりま
す。

井戸の中には、月が明るく、雲が流れ、天が広が
り、真っ青な風が吹き、秋があり、追憶のように
男がいます。

십자가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 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 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1941.5.31

十字架

追いかけてきた日の光が
いま 教会堂の尖端
十字架にかかりました。

尖塔があれほど高いのに
どうして登ってゆけるでしょうか。

鐘の音も聞こえてこず
口笛でも吹きつつ さまよい歩いて、

苦しんだ男、
幸福なイエス・キリストにとって
そうだったように
十字架が許されるのなら

首を垂れ
花のように咲きだす血を
暗くなってゆく天の下に
静かに流しましょう。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손이 호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 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1941.9.31

道

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

何をどこになくしたかもわからず

両手でポケットをさぐり

道に出て行きます。

石と石と石が 果てしなく続き

道は石垣に沿って行きます。

垣は鉄の門を固く閉ざし

道の上に長い影を落として

道は朝から夕べに

夕べから朝に 通じています。

石垣を手さぐりし 涙ぐんで

見上げれば 天は恥ずかしいほど青いのです。

草一本生えていない この道を歩いてゆくのは

垣の向こうに わたしが残っているからで、

わたしが生きるのは、ただ、

なくしたものをを見つけるためなのです。

별헤는 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헤는 것은
쉬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에 추억과
별 하나에 사랑과
별 하나에 쓸쓸함과
별 하나에 동경과
별 하나에 시와
별 하나에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에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패,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애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星を数える夜

季節が移りゆく天には
秋でいっぱい満ちています。

わたしはなんの心配もなく
秋の中の星々を みな数えられそうです。

胸の中の ひとつ ふたつと 刻まれる星を
今すべて数えきれないのは
すぐに朝が来るからで、
^{あした}明日の夜が残っているからで、
まだわたしの青春が 尽きていないからです。

星ひとつに 追憶と
星ひとつに 愛と
星ひとつに 寂しさと
星ひとつに 憧れと
星ひとつに 詩と
星ひとつに お母さん、お母さん、

お母さん、わたしは星ひとつに美しい言葉をひとこ
とずつ呼んでみます。小学校のとき机を並べた子ら
の名まえと、^べ佩、^{キョウ}鏡、^{オク}玉、このような異国の少女た
ちの名まえと、すでに赤ちゃんのお母さんとなった
娘たちの名まえと、^{りんじん}貧しい隣人たちの名まえと、
鳩、小犬、兎、らば、鹿、「フランシス・ジャム」

‘푸랑시스 잠’ ‘라이넬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따은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게외다.

1941.11.5

「ライナー・マリア・リルケ」、このような詩人の名
まえを呼んでみます。

これらの人たちはあまりにも遠くにいます。
星がはるかに遠いように、

お母さん、
そしてあなたは遠く北間島^{ブツカンド}におられます。

わたしは何か恋しくて
このたくさんの星の光が降^ふった丘の上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を書いてみて、
土でおおってしまいました。

たしかに夜^{よる}を明かして鳴く虫は
恥ずかしい名を悲しんでいるからです。

けれども冬が過ぎて わたしの星にも春が来れば
墓の上に青い芝草が萌え出るように
わたしの名まえの字がうずめられた丘の上にも
誇らしく草が生い茂るでしょう。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1941.11.20

序詩

死ぬ日まで天を仰ぎ
一点の恥なきことを、
木の葉に起こる風にも
わたしは苦しんだ。
星をうたう心で
すべての死んでゆくものを愛さなければ
そしてわたしに与えられた道を
歩みゆかねば。

今夜も 星が風にさらされる。

쉽게 씌어진 시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 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たやすく書かれた詩

窓の外に 夜の雨がささやいて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詩人とは 悲しい天命だと知りつつも

一行 詩を書いてみるか、

汗のにおいと愛のにおいにほんのりと包まれた

送ってくださった学費封筒を受け取り

大学ノートを脇に抱えて

老いた教授の講義を聞きに行く。

思ってみれば 幼いときの友を

ひとり、ふたり、みな 失ってしまい

わたしは何を願って

わたしはただ、ひとり沈むのか?

人生は生きがたいというのに

詩がこのようにたやすく書けるのは

恥ずかしいことだ。

六畳の部屋は ひとの国、

窓の外に 夜の雨がささやいているが、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あかり}
灯火をともして 闇を少し追いやり、
時代のように来る朝を待つ 最後のわたし、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わたしはわたしに 小さな手を差し出して
涙と慰めで握る 最初の握手。

1942.6.3

봄

春

봄이 血管 속에 시내처럼 흘러
돌, 돌, 시내 가차운 언덕에
개나리, 진달래, 노 — 란 배추꽃,

春が 血管の中に 小川のように流れ
とく、とく、小川の近くの丘に
れんぎょう、つつじ、黄色い白菜の花、

三冬을 참어온 나는
풀포기처럼 피어난다。

^{さんとう}
三冬を耐えてきたわたしは
草のように萌え出る。

즐거운 종달새야
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楽しいひばりよ
どの^{うね}敵からでも 楽しく舞い上がれ。

푸르른 하늘은
아른, 아른, 높기도 한데……

青い天は
ゆら、ゆら、と高いのだが……

1942.6 (推定)

(「春」の表記は自筆原稿による)

(訳・井田 泉 2025/11/18)